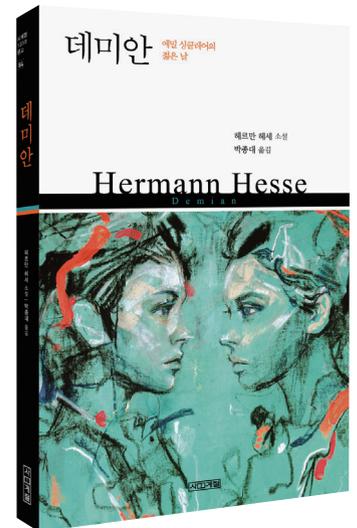

데미안

작성 오세호(안산강서고등학교 교사)
이성균(시흥 함현고등학교 교사)
성지현(김포교육지원청 장학사)
윤이정(안양예술고등학교 교사)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1318문고 84
헤르만 헤세 장편소설 / 박종대 옮김

■ 주제어 #성장 # 밝음과 어둠 #삶의 주인 #극복

■ 분류 문학 > 해외문학 > 청소년문학

도서 소개

현재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또 다를 것이다. 시간에 따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삶의 방식도 다르다. 그렇지만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보다는 더 성장하는 삶을 살려고 하며 자신의 인생이 그렇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인생의 의미를 담은 글을 많이 남긴다. 사실을 바탕으로 쓴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글이 있고, 허구를 가미해 성찰을 유도하는 소설이 있다. 이런 소설을 성장소설이라고 한다.

『데미안』은 성장소설이다.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인 1919년에 독일의 헤르만 헤세가 썼다. 그런데 여전히 많이 읽히는 책이다. 그 이유는 뭘까? 어쩌면 그 답은 독자들에게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독특함이나 유별남이 아닌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는 공감일 수도 있다. 읽는 사람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이야기들이 들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야기는 화자인 '나', 에밀 싱클레어가 열 살일 때부터 시작된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은 충격과 공포인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험의 연속으로 삶이 채워지듯 싱클레어의 여정도 그렇다. 어린 싱클레어에게는 교활한 악마와 같았던 프란츠 크라머와의 만남, 싱클레어에게 술이나 밤거리의 쾌락을 알려 주고 고독과 비애를 느끼게 해 준 알폰소 베크와의 만남,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이자 목사 지망생으로 싱클레어에게 자아를 성찰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알려 준 피스토리우스와의 만남이 있다. 싱클레어를 조력자로 여기고 고민이 있을 때면 찾아와 해결책을 구했던 크나우어와의 만남,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이상적인 여인상이었던 에바 부인과의 만남도 있다. 그리고 모든 만남을 관통하며 싱클레어의 성장과 깨달음을 이끄는 이상적인 정신적 동반자 데미안과의 만남이 있다. 데미안을 만남으로써 싱클레어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고, 모든 인간에게 빛과 어둠의 세계가 있으며, 두 세계가 교차하는 것이 삶이라는 진실을 깨달아 간다. 삶의 주체로서 더 단단해져 간다. 여러분이 『데미안』을 읽으며 '나'의 존재에 대해, '삶'에 대해, '세계'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싱클레어가 겪는 일의 어딘가에 멈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할 기회를 얻기를 기대한다.

학습 목표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또는 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에게나 '데미안'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을까? 싱클레어에게 프란츠 크라머가 그렇듯, 어린 시절엔 나를 힘들게 한 고민이지만 성장한 후 되돌아보면 가벼운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처음 만나는 세계, 즉 주변 사람, 작은 공동체, 내가 사는 사회에는 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 극복되기도 한다. 그런 여유와 성장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는 다시 다가오는 세계를 어떻게 맞이하고 꾸며 가야 할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값진 시간을 만들어 보자.

- 나에게 '데미안' 같은 존재는 무엇인지 성찰해 보자.
- 성장을 위해 겪는 가혹한 외로움과 고통의 의미를 살펴보자.
-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진정한 연대와 포용의 문화가 필요함을 성찰해 보자.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독서 전	노래 의미 찾기	1차시
독서	의미 지도 만들기: 1~2장 내용 파악	2차시
	데미안이 소개하는 '카인'의 프로필 만들기: 1~4장 내용 파악	3차시
	O/X 퀴즈 풀고, 숨은 그림 색칠하기: 5~6장 내용 파악	4차시
	O/X 퀴즈 내고, 숨은 그림 만들기: 7~8장 내용 파악	5차시
독서 후	논제와 논증 만들어 인물 분석하기	6차시
	회전목마 토론 하기	7차시
	심층적 이해와 응용 독서 토론: 퍼블릭 토론 모형으로 토론하기	8차시
	아브락사스 그리기	9차시
	'성장'에 관한 글쓰기	10차시

다음 노래를 듣고 이 노래에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봅시다.

데미안

-여의도 사람들

나는 왜 나도 모르는
이 길을 걸어왔을까
가도 가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은 머물 곳이 없어
새벽이 오는 저 멀리 희미한 불 빛
그 빛에 부서져 흔들리는 내 영혼
이젠 나를 버리고 싶어
나의 서투른 날갯짓으로
한없는 저 세상 밖으로
내가 모르던 나를 찾아서
그렇게 아브락사스
그렇게 아브락사스

너무 늦었을까 이제
내가 날 놓아 주는 것
내 안엔 내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내가 살아 있어
사랑도 눈물도 내 것이 아니었고
목말라 지쳐도 뒤로했던 가슴도
이젠 모두 버리고 싶어
나를 길들여 왔던 모든 것
은빛 나의 날갯짓으로
되올 수 없는 영원 속으로
그렇게 아브락사스
그렇게 아브락사스
그렇게 아브락사스
그렇게 아브락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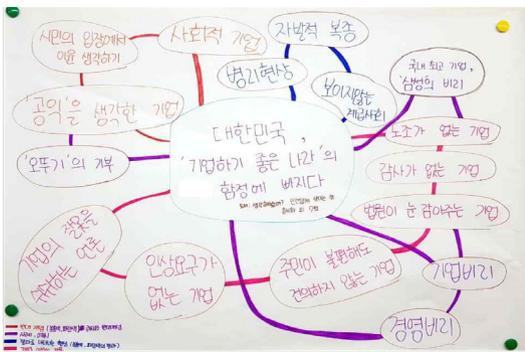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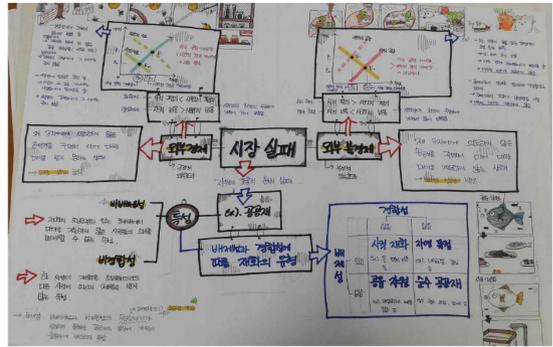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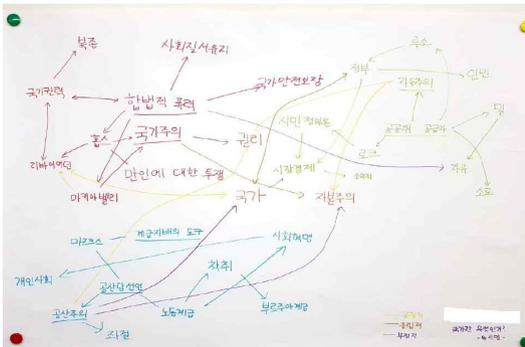
선생님께 <물어본다>(이승환), <길>(god), <아모르 파티>(김연자) 등의 노래를 듣고 각 노래에서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내면적 갈등을 모둠별로 이야기 나누어 보는 활동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모둠을 구성하여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활동 방법〉

- 다음은 1~2장에 나오는 핵심단어 카드입니다. 비어 있는 카드에는 본인이 추가하고 싶은 단어를 넣어 주세요. 이를 가위로 오릅니다.
- 4인 1조로 모둠을 구성하고 오려 둔 단어 카드와 전지, 매직, 풀을 준비합니다.
- 모둠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연관이 있는 단어, 유사한 단어를 분류하고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단어는 단어 덩어리들 중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 모둠 협의가 끝나면 확정된 자리에 단어 카드를 풀로 붙입니다.
- 매직으로 단어 덩어리를 묶어 주고 각 덩어리 혹은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매직으로 설명을 적어 넣어도 좋습니다. 반대 관계, 유사 관계, 인과 관계, 예시 관계 등 관계의 종류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매직의 색을 지정하여 나타내어 보세요.

〈활동 예시〉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고등학교 2,3학년 재학생들의 활동 결과지



두 세계	아버지의 집	폭력	음산함
찬송가	싱클레어	데미안	크라머
라틴어 학교	공립학교	도둑질	거짓말
밝음	어두움		
초콜릿	카인	아벨	저금통
표식	성경	용기	두려움
선	악마	공포	낙원

다음 조건에 따라 활동을 해 봅시다.

〈조건〉

당신은 작가 '헤르만 헤세'의 일생과 작품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 기획팀의 구성원입니다. 그중 소설 『데미안』 코너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팀원들과 회의한 결과 일인극의 주인공을 '데미안'으로 정하고 그가 관객들 앞에 나와 자신이 생각하는 '카인'의 모습으로 분장하여 카인을 소개하는 5분짜리 연극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데미안은 보통 사람들이 믿는 카인에 대해 의심했고, 질문했으며 자신의 생각을 펼쳤는데 그것이 소설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당신은 데미안이 관객에게 소개할 카인에 관련한 대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대사를 발표하고 함께 수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확하게 소설의 내용을 근거로 해야 하므로 다음의 발표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1. 1인극에 등장할 '카인' 분장 계획서를 작성해 봅시다.

<p>〈카인 분장 예상 그림 - 초상화 그리기〉</p>	<p>분장 핵심 계획:</p>
--------------------------------	------------------

2. 데미안이 소개하는 '카인'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특징	근거(책의 1~4장에서 찾을 것)
예시) 주관이 뚜렷한 대장부. 악마와 결별했다고 말하지 않으며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예시) 89~90쪽, 성경의 '두 강도' 이야기에서 데미안이 '회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장면

3. 앞의 1, 2번 활동 결과를 토대로 데미안이 '카인'을 소개하는 대사를 작성해 봅시다.

4. 3번 활동 결과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서로의 대사를 비교하며 경청해 봅시다.

5. 데미안이 말하는 '카인'과 가장 닮은 나의 주변 사람은 누구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작성해 봅시다.

1. 다음 O/X 퀴즈를 풀어 봅시다. (1~8번 문제는 5장의, 9~16번 문제는 6장의 내용을 토대로 풀어 봅시다.)

번호	문제(5장.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친다)	O/ X	번호	문제(6장. 야곱의 싸움)	O/ X
1	나의 꿈속 여인은 천사와 사탄, 선과 악 등의 모습을 모두 품고 있다.		9	크니우어는 나와 마찬가지로 금욕을 통해서 내면의 힘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2	데미안은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악마에 대한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전체 세계에 대한 숭배라고 믿었다.		10	나는 꿈속의 여인을 그린 그림을 보고 야곱의 말을 떠올렸다.	
3	피스토리우스는 나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를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11	나는 피스토리우스를 겪을수록 그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반감을 갖게 된다.	
4	데미안이 나에게 준 쪽지에서 언급한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이다.		12	피스토리우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의 형상들만 현실로 간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말한다.	
5	피스토리우스의 피아노 소리는 나에게 도피처 역할을 하였다.		13	피스토리우스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겨 의미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6	나는 꿈에서 깨어날 때, 환희를 느끼기도 하고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14	나는 피스토리우스를 통해 결국에는 내가 사회 속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7	나의 꿈속 여인의 포옹에는 어머니와 베아트리체의 기억이 어려 있다.		15	내가 피스토리우스에게 골동품 냄새가 나는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한 말 때문에 둘은 서로 감정이 상하고 싸우게 된다.	
8	피스토리우스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자기 속에 세계가 있음을 인식한다고 여긴다.		16	나는 피스토리우스와 벽난로 불을 들여다보며 얻은 외부 지식이 나의 내적 성장을 주로 이끌었다고 믿는다.	

2. 1의 답이 ○에 해당하는 문항 번호의 칸에 색칠을 해 봅시다. (1번의 답이 ○이면 1에 모두 색칠합시다.)

5	2	2	2	2	2	2	1	1	1	1	1	1	2	2	2	2	2	2	2	14	15	15	15	15	15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5	2	2	2	2	1	1	3	3	3	3	3	3	1	1	1	2	2	2	2	14	14	14	14	15	15	16	16	16	9	9	16	16	15	16	16	16	
5	2	2	2	2	1	3	3	3	3	3	3	3	3	3	1	1	2	2	2	14	14	14	14	15	15	16	9	9	9	9	9	9	9	15	16	16	
5	5	5	2	1	3	3	3	3	3	3	3	3	3	3	3	3	1	2	2	14	14	14	14	15	15	16	16	9	9	9	9	9	16	15	16	16	
5	5	2	1	3	3	3	3	3	3	3	3	3	3	3	3	3	1	2	2	14	14	14	14	15	15	9	9	9	9	9	9	9	9	15	16	16	
5	2	1	3	3	1	1	1	3	3	3	3	3	3	3	3	3	3	1	2	14	14	14	14	15	15	16	9	9	9	9	9	9	9	9	15	16	
5	2	1	3	3	3	3	3	3	3	3	3	3	1	1	1	3	1	2	14	14	14	14	15	9	9	9	9	9	9	9	9	9	9	9	15	16	
5	2	1	5	5	1	1	3	3	3	3	3	3	3	3	3	3	3	1	14	14	14	14	15	9	9	9	9	9	9	9	9	9	9	9	15	16	
5	1	5	5	5	1	1	5	5	5	5	5	3	3	1	1	3	3	3	1	14	14	14	14	15	9	9	9	9	9	9	9	9	9	9	9	15	16
5	1	5	5	5	5	5	5	5	5	5	5	3	3	1	1	3	3	3	1	14	14	14	14	15	9	9	9	9	9	9	9	9	9	9	9	15	16
5	1	5	5	5	5	5	4	4	4	4	3	3	3	3	3	3	3	3	1	14	14	14	14	15	9	9	9	9	9	9	9	9	9	9	9	15	16
5	1	5	5	5	5	4	5	5	5	5	4	3	3	3	3	3	3	3	1	14	14	14	14	1	15	15	9	9	9	9	9	9	9	9	9	15	16
5	1	4	4	4	4	5	4	5	4	4	5	4	3	3	3	3	3	3	1	14	14	14	14	1	15	15	15	15	15	15	9	9	9	9	15	16	
5	1	5	7	7	7	4	4	5	5	5	5	5	4	4	4	4	4	3	1	14	1	14	14	1	15	15	15	1	15	15	15	15	15	15	15	16	
5	1	5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10	1	14	14	1	14	15	15	15	1	15	15	15	15	15	15	15	15	16	
5	1	5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10	1	14	14	14	1	15	15	1	15	15	15	15	15	15	15	15	15	16	
5	5	4	4	7	7	7	7	7	7	7	7	7	7	4	7	7	10	1	14	14	14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6	
5	5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7	10	14	14	14	14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6	
5	5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7	10	14	14	14	14	15	15	8	8	8	8	15	15	15	15	15	15	15	16	
5	5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7	10	14	14	14	14	15	8	8	8	8	9	8	15	15	15	16	16	16	16	
5	10	5	7	7	7	4	4	4	4	4	4	4	4	7	7	7	7	10	14	14	14	14	8	8	8	9	8	9	9	8	15	15	16	16	16	16	
5	10	5	7	7	7	7	7	7	7	7	7	7	7	7	7	7	10	14	14	14	14	14	8	8	9	9	8	8	8	8	15	15	16	16	16	16	
5	5	10	10	10	7	7	7	7	7	7	7	7	10	10	14	14	14	14	14	14	14	14	8	8	8	8	8	9	9	8	8	15	16	16	16	16	
5	5	5	7	7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4	14	14	14	14	14	14	14	8	8	9	9	8	9	8	8	8	15	16	16	16	16	
5	5	5	7	11	7	7	7	7	7	7	7	7	7	7	10	14	10	14	14	14	14	14	8	8		9	8	8	8	8	13	13	13	13	13	13	
5	5	5	11	12	12	12	11	11	12	12	12	12	12	12	10	10	12	10	14	14	14	14	8	8	8	8	8	8	8	8	8	13	13	13	13	13	13
5	5	5	11	12	11	11	12	12	11	12	12	12	12	12	10	12	12	10	14	14	14	14	8	8	8	8	8	8	8	8	8	13	13	13	13	13	13
5	5	5	11	12	12	12	11	12	12	12	12	12	12	12	10	14	14	14	6	6	6	6	6	6	6	6	6	6	6	8	8	8	8	8	8	13	13
5	5	5	11	12	12	12	11	12	12	12	12	12	6	12	12	10	14	14	14	6	6	6	6	6	6	6	6	6	6	8	8	8	8	8	8	13	13
5	5	5	12	11	12	11	11	12	12	12	12	12	6	12	12	10	14	14	6	6	6	6	6	6	6	6	6	6	6	8	8	8	8	8	8	13	13
5	5	5	12	11	12	11	11	12	12	12	12	12	6	12	12	10	14	14	6	6	6	6	6	6	6	6	6	6	6	8	8	8	8	8	8	13	13
5	5	5	12	12	11	11	11	12	12	12	12	6	12	12	10	14	14	6	6	6	6	6	6	6	6	6	6	6	6	8	8	8	8	8	8	13	13
5	5	5	12	12	12	11	12	12	12	6	6	6	6	6	13	13	9	9	9	9	9	9	9	9	13	6	6	13	13	13	8	8	13	13	13	13	
5	5	5	12	12	12	11	12	12	12	6	6	6	6	6	13	13	9	9	9	9	9	9	9	13	6	6	13	13	13	8	8	13	13	13	13	13	
5	5	5	12	12	12	12	12	12	6	6	6	6	6	6	13	13	13	9	9	9	9	9	13	6	6	13	13	13	8	8	13	13	13	13	13	13	
5	5	5	12	12	12	12	12	12	6	6	6	6	6	6	13	13	13	13	9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 7장을 읽고, 제시된 답에 해당하는 O/X 퀴즈 14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번호	문제	O/ x	번호	문제	O/ x
1		x	8		x
2		x	9		0
3		0	10		0
4		0	11		x
5		0	12		x
6		0	13		0
7		x	14		x

2. 답을 지운 뒤, 친구에게 O/X 퀴즈를 풀게 하고 답이 ○에 해당하는 번호의 칸에 색칠해 보게 합니다.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4	14	14	14	14	14	14	2	2	2	3	2	2	2	1	1	1	1	1	1	1	1
1	14	14	14	14	14	14	14	2	2	3	3	2	2	2	1	1	1	1	1	1	1	2
1	14	14	14	14	14	14	14	2	2	3	3	3	2	2	1	1	1	1	1	1	1	2
1	14	14	14	14	14	2	2	2	3	3	3	3	3	2	1	1	1	1	1	1	2	2
1	14	14	14	14	14	2	2	3	3	3	3	3	3	3	1	1	1	1	2	2	2	2
1	14	14	14	2	2	2	2	3	3	3	3	3	3	3	3	2	2	2	2	2	2	2
1	14	14	14	2	2	2	3	3	3	3	3	3	3	3	3	3	7	7	7	7	7	7
1	1	2	2	2	2	9	9	9	9	3	3	3	9	9	9	9	9	7	7	7	7	7
1	1	2	2	2	9	9	9	9	9	9	9	9	9	9	9	9	9	9	7	7	7	7
1	1	2	2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7	7	7
1	1	2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7	7
7	7	2	5	5	7	4	4	4	7	4	4	4	4	7	4	4	4	7	5	5	7	7
11	12	5	5	5	4	7	4	7	4	4	4	4	4	4	7	4	7	4	5	5	5	7
11	12	5	5	5	4	7	7	7	4	4	4	4	4	4	7	7	7	4	5	5	5	7
11	12	5	5	5	4	4	4	4	4	4	4	4	4	4	4	4	4	4	5	5	5	7
11	12	5	5	5	6	6	6	6	6	6	6	6	6	6	6	6	6	6	5	5	5	7
11	12	5	5	5	6	6	6	6	6	6	6	6	6	6	6	6	6	6	5	5	5	7
11	12	5	5	5	10	10	10	10	6	6	6	6	6	6	6	6	6	6	5	5	5	7
11	12	12	5	5	10	10	10	10	6	6	6	6	6	13	13	13	13	13	5	5	8	7
11	12	12	5	5	10	10	10	10	8	6	6	6	6	8	13	13	13	13	5	5	8	7
11	12	12	12	5	10	10	10	10	8	6	6	6	6	8	13	13	13	13	5	8	8	7
11	12	12	12	12	5	10	10	10	10	8	8	8	8	13	13	13	13	13	5	8	8	7
11	12	12	12	12	10	10	10	10	10	6	6	13	13	13	13	13	13	13	8	8	8	7
11	12	12	12	12	10	10	10	10	10	6	6	13	13	13	13	13	13	13	8	8	8	7
11	12	12	12	12	11	10	10	10	10	6	6	13	13	13	13	13	13	8	8	8	8	7
11	12	12	12	12	11	11	10	10	10	6	6	13	13	13	13	13	8	8	8	8	8	7
11	11	11	11	11	11	11	11	10	10	6	6	13	13	13	13	8	8	8	8	8	8	7
11	11	11	11	11	11	11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2. 『데미안』의 내용을 이용하여 논증 구조를 완성해 봅시다.

1) 논증 구조의 일부를 완성해 봅시다.

〈59~60쪽〉

주장	S소년은 잘 놀라는 것이 발견된다.	싱클레어는 잘 놀라는 것이 발견된다.
이유	S소년은 누군가와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	싱클레어는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근거	S소년은 000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싱클레어는 ()

〈59쪽〉

주장	소년은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있다.	싱클레어는 ()를 무서워하고 있다.
이유	소년은 그 사람에게 자신을 지배할 권리를 넘겨 버렸기 때문이다.	싱클레어는 ()에게 자신을 지배할 권리를 넘겨 버렸기 때문이다.
근거	실제로 소년은 ~에 의해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싱클레어는 ()의 휘파람 소리에 저항하지 못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아래〉 내용을 읽고 논제를 설정한 후, 논제를 주장으로 하는 논증을 만들어 봅시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이 세계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버지였고, 사랑과 엄함, 모범과 학교라고도 불렸다. 부드러운 광채와 명료함, 청결함이 그 세계의 구성 성분이었고, 온화하고 다정한 말, 깨끗이 씻은 손, 말끔한 옷, 선한 관습이 그 특징이었다. 여기서 미래도 아무 굴곡 없이 일직선으로 곧게 나아갔고,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 선한 의도,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늘 함께했다. 삶을 명확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꾸러 나가려는 사람은 이 세계에 머물러야 했다.

다른 세계 역시 우리 집의 한가운데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떠돌이 직공, 귀신 이야기, 추악한 소문들이 있었고, 입이 짝 벌어지는 유혹적이고 무시무시하고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또한 도살장과 감옥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일들, 고주망태가 된 남정네와 상스러운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여편네들, 새끼를 낳는 암소들, 고꾸라진 말들이 있었고, 강도와 살인, 자살에 관한 이야기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아름다우면서 소름이 오싹 끼치는 거칠고 잔인한 일들은 집 앞 골목이나 옆집뿐 아니라 곳곳에 널려 있었고, 경찰관과 부랑아들도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돌아 다녔다.

가장 이상한 것은 두 세계가 서로 맞닿을 듯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주장	
이유 (주장과 관련하여 생각 해낸 진술)	
근거 (주장, 이유와 관련 있는 사례, 의견 등)	

선생님께 책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성해 보는 활동입니다. 각자 또는 모둠으로 논증 구조를 완성하도록 지도합니다.

7차시

회전목마 토론 하기

1. 소설의 구절을 읽고 공통된 주제를 찾아 토론을 위한 논제를 만들어 봅시다.

- 편안한 것에 빠져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결정권을 잃은 사람이 바로 남이 금지해 놓은 대로 따르는 거야. 그런 사람은 쉽게 살아. 반면에 그들과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도덕적 법칙을 찾아. 그래서 다른 데서는 금지된 일도 그들은 할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독자적으로 살아야 해. (95쪽)
- 우린 말이 너무 많아. 잘난 척하려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자기 자신을 떠나는 거지. 자신을 떠나는 건 최악이야. 사람은 자기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해. (97쪽)
- 나는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을 온전히 살아 보려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리 어려웠을까. (141쪽)
- 자신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찾아냈다면 그것을 찾게 한 것은 우연히 아니라 그 자신이다. 자신의 강렬한 욕구와 필요가 그를 그리로 이끈 것이다. (144쪽)
-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다 들어 있다.”, “세계를 그저 자기 속에 담고만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인식까지 하고 있느냐는 큰 차이”, “자각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가능성이 자기 것이 되네.” (155~157쪽)
외부 사물들은 사실 우리 속에 있네. 우리 속에 있는 현실 외에 다른 현실은 없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살아가지. 외부의 형상들만 현실로 간주하고, 자기 속의 고유한 세계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지. (167쪽)
- 그런데 나를 내적 성장으로 이끈 것은 외부 지식이 아니라 그 반대, 즉 나의 내면에 있었다. (179쪽)

- 의식이 깬 사람에게서는 자기 자신을 찾고,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 이를 것인지 상관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더듬거리며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의무는 결단코 존재할 수 없다. (188쪽)
- 사람은 자기 꿈을 찾아야 해요. 그러면 길이 좀 쉬워지죠. 하지만 지속되는 꿈은 없어요. 항상 새로운 꿈으로 대체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어느 한 꿈에만 매달려서는 안 돼요. (210쪽)
- 언젠가 당신은 당신이 꿈꾸는 대로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이 될 거예요. 당신만 변함없다면. (211쪽)

논제	
----	--

선생님께 제시한 구절의 공통적인 관점은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안내하시면 됩니다.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해야 한다’ 등의 주제를 찾아내도록 지도하시면 됩니다.

2. 1번 활동에서 작성한 논제 중 하나를 골라 ‘회전목마 토론’을 해 봅시다.

〈토론 방법〉

- ① 바깥쪽 원과 안쪽 원으로 두 개의 원을 만들어 안쪽과 바깥쪽 학생이 두 명씩 마주보고 앉는다. 이때, 바깥쪽 원과 안쪽 원의 인원은 동일하게 배치한다.
- ② 교사는 논제를 제시하고, 안쪽 학생이 논제에 대한 찬성 의견을 논증 구조로 제시한다. 바깥쪽 학생은 안쪽 학생의 의견을 듣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토론 시간은 1~2분으로 한다. (이때, 바깥쪽 학생의 반대 의견 제시 단계는 생략할 수 있다. 바깥쪽 학생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토론은 1분.)
- ③ 토론 시간의 종료를 알린다. 바깥쪽 학생이 시계 방향으로 두세 칸 이동한 후 직전 토론을 요약 설명하고, 안쪽 학생은 다른 이유와 근거를 들어 두 번째 토론을 한다. 토론 시간은 2~3분으로 하며 직전 토론과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이동 칸 수를 정한다.
- ④ 바깥쪽 학생은 다시 자리를 옮겨 앉아 두 학생의 의견을 요약해서 말한다.
- ⑤ 바깥쪽 학생 중 몇 명이 세 번의 토론 내용을 요약 발표한다.

논제	
----	--

	안쪽 학생 의견	바깥쪽 학생 의견
1토론	학생 이름()	학생 이름()
2토론	학생 이름()	학생 이름()
3토론	학생 이름()	학생 이름()

1. 『데미안』을 읽고 심층적인 의미를 찾아 토론을 해 봅시다.

1) <보기>를 토대로 '성장'을 주어로, '상처' 또는 '고통' 또는 '외로움' 등의 어휘를 활용한 토론 논제를 만들어 봅시다.

〈보 기〉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성장을 그리는 작품이다. 그러나 그 성장은 어느 한 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한두 개의 계기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싱클레어의 성장 과정에는 프란츠 크라머에게 시달리는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고, 데미안의 말에 기존 가치가 흔들리는 혼란도 있었다. 알폰소 베크가 알려준 어둠의 세계는 즐거움과 쾌락이 있었지만 고통과 비애를 느끼게도 해 주었다. 피스토리우스와의 만남은 싱클레어를 한 단계 성장시켰지만 결국은 혼자 남는 외로움을 동반하기도 한다. 여인에 대한 간절한 마음 또한 고뇌와 외로움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과정이었다. 니체의 입장처럼 삶의 주인으로 서면서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달콤한 열매만을 섭취한 결과는 아닌 것이다.

논제

선생님께 인간의 성장은 어떤 의미인지 탐구해 보기 위해 구성한 문항입니다. '성장은 ~이다'의 형식으로 주어진 어휘나 그 외 어휘를 이용하여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방향으로 지도합니다. [예] 성장은 상처로 인해 더 가치 있어진다.

2) <보기>를 읽고, 조건에 맞춰 자신의 주장을 만들어 봅시다.

〈보 기〉

디오니소스적 요소와 아폴론적 요소라는 말이 있다. 그리스 신화를 원용하여 유럽 예술 경향을 분류하는 경우에 쓰이는 개념이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을 서로 환원될 수 없는 예술의 두 가지 근본 범주로 설정하고 모든 예술을 하나의 유일한 원리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반대하면서 비판적으로 이 개념을 사용한다. 의식적으로 분별하는 주관적인 능력이 아폴론적인 것이라면, 주관이 도취의 상태로 고양되어 몰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다.

아폴론은 빛의 신이며, 디오니소스는 빛으로 비출 수 없는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빛으로 비춘다는 의미는 인간

의 이성이 진리를 밝혀내는 것이므로, 아폴론은 로고스(Logos)의 상징이다. 그에 반해 디오니소스는 빛으로 비출 수 없는 존재, 즉 이성의 힘과는 다른 어떠한 것의 상징이다. 디오니소스는 황홀과 도취의 상징이다. 아폴론적 예술이란 조형적인 예술이며, 디오니소스적 예술이란 비조형적인 예술인 음악이다. 꿈은 아폴론적이며 도취는 디오니소스적이다.

위대한 조각가는 꿈속에서 현실의 세계보다 완전한 세계를 보게 되고, 그것을 드러낸다. 꿈속의 상태의 보다 높은 진리와 완전함을 추구하고, 그 진리에의 추구는 조형으로 발현된다. 아폴론은 자유와 조화, 평정을 추구한다. 아폴론은 근거의 원리인 것이다. 그러나 근거의 원리가 흔들리게 될 때, 인간은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없고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럴 때 인간은 마취적 음료를 통하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즐거운 황홀감을 느끼며, 이것이 인식에 있어서의 공포와 어우러져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본질을 이룬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질서 속에 묶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 작가의 창작 정신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이고, 작품을 형상화하는 단계에서는 아폴론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폴론은 인식할 수 있는 무엇이지만, 디오니소스는 인식의 체계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아폴론적인 것은 로고스에 의한 것이지만, 디오니소스는 로고스의 이면을 지탱하고 있다. 아폴론적인 것을 자아라고 본다면, 바로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타자성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술에 의한 이성적 사고 중지 혹은 마비, 그리고 모든 것의 망각을 통하여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체험한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이성과 합리성의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니체는 모든 예술 활동의 발전은 디오니소스형과 아폴론형의 영원한 투쟁과정에 있다고 봤다. 이를테면 서구의 고전주의는 아폴론적인 것이며, 낭만주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다. 예술사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상이한 충동이 대립하면서 한 쪽의 상승을 가져오는 과정을 통해 예술은 새롭게 탄생한다.

출처: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네이버 지식백과 재인용]

‘싱클레어의 성장은 ()적 요소가 더 큰 역할을 했다’

2. 1번 활동에서 작성한 주장(논제)을 이용하여 토론을 해 봅시다.

● 토론 모형: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팀	먼저 발언 팀		나중 발언 팀	
토론자 순서	제1토론자	제2토론자	제1토론자	제2토론자
1(8분)	입안(4분)		입안(4분)	
2(8분)	교차질의1		교차질의1	
3(8분)		반박(4분)		반박(4분)
4(8분)		교차질의2		교차질의2
5(8분)	요약(2분)		요약(2분)	
6(8분)	전체 교차질의			
7(8분)		마지막 초점(2분)		마지막 초점(2분)

● 토론 방법

- ① 각 팀은 2명으로 구성하며 1토론자가 '입안, 교차질의1, 요약'을, 2토론자는 '반박, 교차질의2, 마지막 초점' 발언을 맡아 토론한다. 각 팀을 4명으로 구성하여 8명이 토론할 때는 교차질의를 제외한 '입안, 반박, 요약, 초점'을 나누어 맡아 진행할 수 있다. 각 팀을 3명으로 구성하여 6개의 단계를 2개씩 배분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 ② 동전 던지기 등을 통해 토론을 시작한다. 동전 던지기에서 이긴 팀은 찬반을 선택하거나 발언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이긴 팀이 찬성을 고르면 상대는 발언 순서를 고른다. 반대로 이긴 팀이 발언 순서를 선택하면 상대는 찬반을 선택한다.
- ③ 청중(판정관)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먼저 발언 팀이, 오른쪽에는 나중 발언 팀이 앉는다.
- ④ 입안(순서 1): 먼저 발언 팀 1토론자가 자기 측이 맡은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논증 구조로 밝힌다.
- ⑤ 교차질의1(순서 2): 1토론자끼리 교차질의를 한다. 먼저 발언 팀이 질의를 시작한다.
- ⑥ 반박(순서 3): 2토론자가 상대방의 입안을 분석하여 논증 구조로 반박을 진행한다.
- ⑦ 교차질의2(순서 4): 2토론자끼리 교차질의를 한다.
- ⑧ 요약(순서 5): 입안의 내용과 반박 과정에서 나온 이유, 근거를 중심으로 쟁점별로 자기 측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낸다. 토론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⑨ 전체 교차질의(순서 6): 토론 참가자 전체가 질의응답을 한다.

⑩ 마지막 초점(순서 7): 2토론자가 자기 측의 핵심 주장을 강조하고 상대 측의 약점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한다.

⑪ 양 팀은 필요한 단계에서 각각 2분 동안의 '준비 시간'을 자유롭게 요청하여 쓸 수 있다. 2분을 몇 차례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먼저 발언 팀	나중 발언 팀
입안		
교차질의1		
반박		
교차질의2		
입안		
전체 교차질의		
마지막 초점		

1. 선과 악이 공존하는 '아브락사스'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 봅시다.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drawing the character 'Abraxas'.

2. 자신이 그린 '아브락사스'의 모습을 설명해 봅시다.

아래 제시된 『데미안』 본문을 읽고 활동해 봅시다.

(가)

그녀가 나의 매 그림을 가리켰다.

“이 그림을 받았을 때만큼 우리 막스가 기뻐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녀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죠. 우린 당신을 기다렸어요. 이 그림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싱클레어, 당신이 소년이었을 때 어느 날 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이마에 표식이 있는 아이를 봤다고요. 그 아이와 친구가 될 것 같다고요. 그게 바로 당신이었어요. 우리에게 오는 길 이 쉽지 않았겠지만 우린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 열여섯 살 무렵 방학 때 여기 와서 막스를 만난 것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내가 불쑥 입을 열었다.

“데미안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땐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였어요.”

“막스가 내게 이런 말을 했죠. 지금 싱클레어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또다시 사람들 속으로 도망치려 한다. 심지어 술집까지 들락거리고 있다, 하지만 결코 사람들 속으로 도망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마의 표식이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속에서는 그를 불태우고 있다. 그렇지 않았나요?”

“맞아요.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 뒤 저는 베아트리체를 만났고, 이어 또 한 사람의 인도자가 저를 찾아왔죠. 그의 이름은 피스토리우스였습니다. 그를 만나고서야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왜 막스한테 그렇게 깊이 묶여 있었고, 왜 그렇게 벗어날 수 없었는지를요. 부인, 아니 어머니, 당시 저는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살았어요. 그 길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힘든 건가요?”

그녀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공기처럼 가벼운 손길이었다.

“태어나는 건 누구나 어려워요. 당신도 알잖아요? [A]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이제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 길이 그렇게 어려웠느냐고. 그렇게 어렵기만 했느냐고. 혹시 아름답지는 않았느냐고. 더 아름답고 더 쉬운 길이 있더냐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마치 꿈결처럼 대답했다.

“어려웠습니다.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 꿈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나를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그래요, 사람은 자기 꿈을 찾아야 해요. 그러면 길이 좀 쉬워지죠. 하지만 지속되는 꿈은 없어요. 항상 새로운 꿈으로 대체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어떤 한 꿈에만 매달려서는 안 돼요.”

나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다. 이것이 경고일까? 아니면 벌써부터 방어막을 치는 것일까?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묻지 않고 그저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 꿈이 얼마나 지속될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영원하길 바랍니다. 저 새 그림과 함께 제 운명이 저를 어머니처럼, 연인처럼 받아주었으니까요. 제 운명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바로 저의 것입니다.”

“그 꿈이 당신의 운명인 한 당신은 그 운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녀가 진지한 어조로 내 말을 확인시켜 주었다.

웬지 모를 슬픔이 가슴 한가득 밀려왔다. 이 황홀한 순간에 이대로 죽어 버렸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도 함께 밀려들었다. 눈물이 견잡을 수 없이 솟구쳐 온몸으로 퍼지는 듯했다. 아, 얼마나 오랫동안 울어 보지 못했던가! 나는 몸을 뒹 돌려 창가로 걸어가 화분의 꽃들 너머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장자리까지 가득 찬 와인 잔처럼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싱클레어, 당신은 아직 어리군요! 당신의 운명은 당신을 사랑해요. 언젠가 당신은 당신이 꿈꾸는 대로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이 될 거예요. 당신만 변함없다면.”

(나)

내가 이의를 제기했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가 노력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

피스토리우스가 격하게 소리쳤다.

“세계를 그저 자기 속에 담고만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인식까지 하고 있느냐는 큰 차이네. 어떤 미친 인간이 플라톤을 연상시키는 사상을 내놓을 수도 있고, 헤르후트 신학교에 다니는 한 경건한 소년이 그노시스파나 조로아스터교에서나 나타나는 심오한 신화적 관련성을 창조적으로 숙고할 수도 있네. 하지만 세계가 자기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한, 그 친구는 여전히 나무나 돌, 기껏해야 동물에 불과하네. 그러다 그걸 처음으로 어슴푸레하게라도 깨닫는 순간 인간이 되지. 자네도 설마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두 발 달린 것들이 다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직립보행을 하고, 어미 배 속에서 아홉 달을 있다가 나왔다는 이유로 말이네. 그래, 그들 중에는 아직도 물고기나 양, 벌레, 거머리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네. 개미와 벌인 것도 많고! 물론 그들 각자 속에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지. 하지만 그것을 예감하거나, 어느 정도 자각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가능성이 자기 것이 되네.”

우리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아주 새롭고 놀라운 것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지극히 상

투적인 대화조차 항상 내 속의 같은 지점을 망치로 계속 내려치듯 나직이 쿵쿵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그와의 모든 대화는 내 속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을 도와주었고, 내가 허물을 벗고, 알껍테기를 깨고 나오는 것을 도와주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나는 점점 높이 고개를 들고 좀 더 자유롭게 고개를 움직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의 노란 새가 부서진 알껍테기 사이로 아름다운 맹금류의 머리를 쑥 내밀었다.

(다)

나는 당시를 회상할 때마다 항상 감동으로 마음이 몽클해진다. 당시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인생기의 폐허 위에서 ‘밝음의 세계’를 다시 짓고자 무진 애를 썼다. 그때는 단 하나의 소망밖에 없었다. 내 속에서 어둠과 악을 완전히 몰아내고, 신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찬란한 빛 속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이었다. 어쨌든 이 ‘밝음의 세계’는 어느 정도 나 자신이 창조한 것이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품으로 도망치거나, 책임질 일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닐, 내가 직접 고안하고 스스로에게 요구한 과업이었다. 더구나 책임감과 자기 수양이 따르는 과업이기도 했다. 내가 그동안 괴로워했고, 계속 도망치기에만 급급했던 성적 관심은 이제 이 신성한 불꽃 속에서 정신과 기도로 승화되어야 했다. 이제 어두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추악한 것도, 신음으로 지새운 밤도, 음탕한 그림을 보며 가슴이 쿵광거리던 것도, 금지된 문 앞에서 몰래 귀를 기울이던 일도, 육신의 욕정도 더는 있어서는 안 되었다. 이 모든 것 대신 나는 베아트리체의 영상으로 나의 제단을 세웠고, 그것에 나를 바침으로써 정신과 신들에게 나를 봉헌했다. 그리고 어둠의 힘들에서 다시 빼앗은 내 삶의 일부를 밝음의 시계에 제물로 바쳤다. 나의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순결함이었고, 행운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뛰어난 정신이었다.

이러한 베아트리체 숭배는 내 인생을 백팔십도로 바꾸어 놓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숙한 냉소주의자였던 내가 이제는 성인(聖人)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신전의 하인이 되었다. 나는 그동안 내 몸에 밴 나쁜 삶만 떨쳐 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려 했고 모든 것에 순결함과 고결함, 품위를 부여하고자 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말하고 웃을 입 때도 그 생각만 했다. 나는 아침을 냉수욕으로 시작했다. 처음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스스로를 강제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진지하고 품위 있게 행동했고, 항상 자세를 곧게 유지했으며, 걸을 때도 천천히 기품 있게 걸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내 내면에서 그것은 신에 대한 예배나 다름없었다.

1. (가)~(다)를 읽고 싱클레어가 성장하는데 영향을 준 각각의 인물과 그 인물들을 통한 싱클레어의 깨달음을 서술하시오.

2. [A]를 바탕으로 자신의 ‘알’은 무엇이며, ‘알’을 깨뜨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서술하시오.